중소기업 지원활동

중소기업청은 설비투자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PL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중소청에 상담실을 설치 하였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 설비투자 지원대책' 마련

중소기업청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설비투자 지원대책'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기청의 이번 지원대책은 수출 등으로 기업의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자금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확대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설비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지원 대책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설자금 중 구조개선자금 수요가 증가, 올해 7000억원 규모의 자금 소진이 확실시 됨에 따라 하반기에 2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중소·벤처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시설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라고 한다.

또한 중소·벤처창업자금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에서 병행지원하고 있는 운전, 시설자금 가운데 시설자금의 비율을 전체의 70%수준으로 집중, 9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5%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이달 중에 중소 제조업을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매출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을 지원하고 9월에는 수출·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외화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을 지원, 저리의 외자 유치를 통해 장기 설비 투자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이밖에 영세기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중소설비구입 특례자금을 신설, 오는 8월부터 업체당 3억원까지 중고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토록 하는 한편 무담보 기업을 위해 신용대출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전국 12개 지역에 제조물책임(PL) 상담실 설치

중기청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 제조물 책임(PL) 상담실을 설치하고 지난 6월 20일부터 상담업무를 개시했다고 한다.

이 상담실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제조물의 안전성제고 방안, 기업의 대응요령, 정부지원시책, 제조물책임 분쟁해결 방안 등을 안내하고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접수, 처리하게 된다고 한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공급한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여 소비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30여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제조물책임 상담실 설치 현황

지역별	설치장소	문의
서울	서울지방중기청 민원실	02-509-7018~9
부산,울산	부산,울산지방중기청 경영지원과	051-601-512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기청 기술지원과	053-659-2230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경영기술지원단	062-360-9148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센터	024-865-6147
경기	경기지방중기청 경영기술지원단	031-290-6938
인천	인천지방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	032-4450-1162
강원	강원지방중기청 기술지원과	033-256-6033
충북	충북지방중기청 민원실	043-230-5343
전북	전북지방중기청 경영기술지원단	063-210-6471
경남	경남지방중기청 민원실	055-268-2511
제주	제주지방중기청 경영기술지원단	064-723-2109